

축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소안면민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초하의 계절에 제11회 소안항일문화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신 소안배달청년회 노재완 회장님을 비롯한 청년회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13 선거에서 군민의 열렬한 성원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신 신우철 군수님,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영암 해양경찰서장님, 완도 군의회 박인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완도군의원 당선외 영예를 받으신 박재선, 이범성, 최정욱 당선자님, 고영상 소안면장님을 비롯한 관내외 기관사회 단체장님과 읍면 청년회장단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소안면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소안항일문화축제를 개최한 이후 어느덧 11회 째에 접어든 우리지역의 전통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년전 암울하고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활발한 항일운동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기개와 애국정신을 드높인 소안항일운동은 작게는 소안면민과 완도인들의 자긍심이며, 한국인의 기개를 대내외에 보여준 민족의 귀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한민족사에 큰 획을 그은 소안항일운동은 선조들께서 이룩한 숭고한 정신적 자산으로, 후손인 우리 모두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자랑스런 문화유산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선조들께서 실천하신 고향사랑과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소안과 완도군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제7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군민여러분께서 완도군의회의에 많은 성원과 응원에
박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11회 소안향일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군민 모두와 함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가고싶은 섬 소안면이 더욱 발전해 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